

지역 소식통

부안군, 청정해풍 머금고 자란 지역특산물 즉석 '뽕비빔밥' 상품 개발

일반음식점 보급형 레시피 발표

김제시 투어패스 가맹점 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시청 2층 상환실에서 도3대 핵심과제인 '토탈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투어패스 카드 관련, 특별할인 가맹점 업주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맹점 대표 및 소속직원에게 투어패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패스 소지 관광객 대응 방법, 협약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 등의 내용으로 실시했다.

김제시는 자유이용시설 3곳, 특별할인 매장 36개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무료이용 등 김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알찬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금산사와 벽곡제 관광안내소에서 투어패스 카드를 판매하고 특별할인가맹점을 향후 15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김제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분위기를 확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목표액의 21.09 억원을 상반기내에 집행하기로 하였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23일 오전 10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전체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상반기 월별 집행계획을 정하고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승복 부시장은 긴급유찰 제도 활용 및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등 신속집행 10대 추진자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소방서, 다문화가족 소방교육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23일 11시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등록회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실시한 이날 교육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119신고요령, 지진 대피방법, 화재 시 대응요령, 기초 소방시설 설치 촉진 안내 등을 내용으로 다문화가정의 화재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였다.

교육을 맡은 이배근 소방관은 "다문화 가정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이 청정해역의 해풍을 머금고 자란 지역 특산물인 부안참뽕을 활용한 간편 건강식인 즉석 뽕 비빔밥을 개발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과 요식업체, 쉼마블로거 회원,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뽕 비빔밥 즉석제품 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안참뽕 외식상품(뽕 비빔밥) 일반음식점 보급형 레시피 및 제품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군은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연구는 부안특화자투인 부안참뽕과 뽕잎을 활용하여 부안을 대표하는 히트음식 개발 등을 위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부안군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는 바쁜 현대인에게 건강을 담은 간편 음식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 기호도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좋아하는 맞춤형 즉석 밥 형태와 일반음식점 보급형 레시피 등으로 개발됐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뽕 비빔밥을 부안군 대표음식으로



이용한 고추장 양념 소스와 뽕잎을 넣은 양념, 부안 쌀로 만든 뽕잎밥을 진공 포장한 컵밥으로 부안참뽕의 외식산업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장소, 비용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즉석식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 선정해 6차 산업 외식 카페와 관내 음식점에도 교육을 통해 레시피를 전수할 계획"이라며 "누에를 활용한 그라주, 오디와 뽕잎을 활용한 젤리마스크 팩, 건강 뽕 디저트, 찹쌀과 뽕잎을 넣은 뽕빵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히트상품으로 육성해 부안 참뽕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사회적기업 '유기농비건 한전 태양광 에너지 복지사업' 선정

1억5천만원 상당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설치 지원·6월부터 발전 수익금 확보

정읍의 사회적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유기농비건(주)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한국전력공사 태양광 에너지 복지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전력공사 태양광 에너지 복지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시키고 태양광 발전 설비(100kw)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하여 발전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읍시, 8억원 투입 3개 마을 상수도 급수관 포설사업 추진

정읍시가 8억원을 들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3개 마을 8km 구간에 대한 상수도관 포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옹동면 상기와 내장상동 운암과 백석 3개 마을로, 현재 실시계획용역 중에 있다.

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 15일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중 유기농비건(주)를 비롯 모두 2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유기농비건(주)은 1억5천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설치하게 되고, 오는 6월부터 태양광 발전 수익금(연 2,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기농비건은 이 수익금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기부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기농비건은 이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유기농쌀과 이를 원료로 한 쌀과자와 조정을 생산하고 있다. 유기농식품 인증과 해삼(haccp)인증을 취득했고, 코레일 유통과 백화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물도 98.3% 높어진다고 밝혔다. 또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안정적으로 상수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중 위생 수준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읍 행복지원센터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

농촌지역 농한기 시내 권 중심지에서 방문판매(일명 뺑뺑이)가 성행하고 있어 부안읍 행복지원센터가 피해예방 캠페인 벌였다.

23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는 조용환읍장을 비롯하여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옥길) 17명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문판매 앞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방문판매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마세요" "충동구매 가정경제 흔들린다" 피켓을 들고 판매장 들어가는 음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장단은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하는 어르신들과 직접 대면하며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하시기 바라며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시기 를 거듭 당부했다.

부안읍 조용환 읍장은 방문판매업의 성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군민 피해를 예방하려고 마

을 일제출장을 통한 지속적인 마을방문을 독려·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차량방문을 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와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안지역 내 2월 현재 3곳의 뺑뺑이가 운영되어 공짜 상품 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모아 각종 생활용품을 허위·과장 광고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뺑뺑이 업주들은 빈 건물들 임시로 빌려놓고 홍보관을 만들어 봉고차 여러 대를 이용,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모은 후 값싼 화장지와 플라스틱 통, 바가지 등을 나눠주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부당상술을 펼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금민농협, 중동 지역에 쌀 첫 수출

김제시 금민농협은 23일 금민농협미곡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쌀 수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상차식을 가졌다.

금민농협은 2016년 7월 호주와의 '황금벼리미' (품종 신동진) 수출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비레인,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쌀 수출 독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민 수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라바비 지사 서명구 지사장이 현지 바이어들과 접촉해 우리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 수출물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금민농협의 중동지역 수출 계약물량은 연간 500톤이며, 첫 수출물량인 15톤은 수출업체 오케이씨에스 주식회사를 통하여 금민농협 미곡처리장에

서 컨테이너 상차 후 부산항으로 이동하여 23일 선적할 예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분검사와 검역을 마친 쌀은 출항 후 3월 중순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되어 우수한 미질을 뽐내며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물론 현지 미식가들의 입을 즐겁게 할 것이다.

최승운 금민농협조합장은 "수출은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업으로써 철저한 품질 및 생산관리를 통해 쌀 소비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행사에 참여한 유통식품과 조기문 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성있는 쌀 수출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김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various gift set options listed with prices.